

경제 행위를 통해 바라본 『노생거 사원』 속 여성의 미덕 : 결혼 시장에서의 상품이자 소설의 소비자로서 이자벨라, 캐서린 그리고 엘리너

진 해 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국문초록

본 논문은 『노생거 사원』을 보수적이고 진부한 여주인공의 성장 소설로 보는 흐름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여, '경제 행위'라는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여 작품 속 세 여성 인물(이자벨라, 캐서린, 엘리너)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흐름의 기저에 깔려있는 기존 영국 사회의 가정 이데올로기를 반성적으로 성찰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각 인물의 결혼 시장에서의 인식과 선택, 그리고 책 소비 행위를 경제적 행위의 측면에서 조망하여 텍스트의 깊이 있는 의미를 해석하였다. 이자벨라는 결혼 시장에서 스스로가 갖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적 굴레에 갇혀 겉치레와 위선이라는 잘못된 자기 홍보행위로 일관하여 결혼 시장의 주변부에 소극적인 행위자로 남았고, 책 또한 겉치레로 그저 소비하기만 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면적으로는 당대 가정 이데올로기의 표본으로 그려진 엘리너 역시 결혼 시장 내에서 스스로의 위치에 대한 인식에 갇혀 능동적이고 솔직한 자기표현의 행위 없이 그저 소극적인 여성에 머물렀다. 반면 캐서린은 소신 있는 행위자로서 끊임없는 나름의 판단과 사고를 바탕으로 선택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용의주도함과 끈기를 보였다. 세 인물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작가가 지향한 당대 사회의 여성으로서의 미덕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 주제어 ■ 제인 오스틴, 노생거 사원, 여성의 미덕, 여성성, 경제 행위

** haeyunj@knou.ac.kr

1 서론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의 『노생거 사원』(Northanger Abbey)은 인물 설정, 과장된 묘사와 서술, 그리고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작품 속 화자의 목소리 등의 기제를 통해 기존 감상 소설의 관습화된 패턴을 전도하고 그 이데올로기를 패러디, 조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Jurtikova, 2006). 다음에 제시한 인용문에서 오스틴은 기존 감상 소설에서 옹호하는 소위 ‘선량하고 아름다운’ 여성의 미덕을 여주인공 캐서린(Catherine)에 투영해 그를 조롱하고 있다.

애정을 받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무지해야 한다... 아름다운 소녀의 타고난 어리석음이 갖는 장점은 이미 동료 여성작가의 탁월한 펜으로 진술된 바 있다; ... 그러나 캐서린은 자기의 장점을 모르고 있었다. 애정이 풍부하고 대단히 무지한 마음을 가진 예쁜 소녀가 영리한 젊은이를 매혹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Where people wish to attach, they should always be ignorant... The advantages of natural folly in a beautiful girl have been already set forth by the capital pen of a sister author; ... But Catherine did not know her own advantages-did not know what a good looking girl, with an affectionate heart and **a very ignorant mind, cannot fail of attracting a clever young man,** unless circumstances are particularly untoward. (p. 91)

무지하고 순진한 캐서린이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이러한 해석은 이 소설을 무지한 여성의 교육과 성장이라는 큰 틀에 바

탕을 둔 ‘성장 소설’로 보는 흐름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캐서린이 현명한 남자 주인공 헨리(Henry)를 만나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닫고 행복한 결혼에 골인하게 되는 결말은 결국 여성이 당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소위 ‘집안의 천사(Angel in the house)’로서의 전통적 덕목들을 갖추고 정신적, 도덕적인 면에서 성숙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오스틴은 그 이전 시기부터 이어져 온 전형적인 소위 ‘교훈 소설’의 전통을 계승하고 당대 사회의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는 “전통적 도덕가, 진부한 보수주의자”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전미경, 2006, 219쪽).

하지만 『노생거 사원』을 단순히 당대 감상 소설에 대한 조롱, 혹은 여성의 성장 소설로 보기 어려운 몇 가지 측면들이 있다. 단적인 증거로 이 소설은 감상소설과 고딕 소설에 대한 패러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감상소설과 고딕 소설의 틀을 따르는 이중성을 띠고 있고, 화자가 끊임없이 개입해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 판단을 “독자에게 맡기겠다”(“I leave it to be settled by whomsoever it may concern,” p. 198)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텍스트 곳곳에서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오스틴이 이 소설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했던 여성으로서의 미덕에 대한 메시지는 텍스트 자체에 드러난 표면적 의미만으로 쉽게 재단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경제 행위’라는 시각을 적용하여 오스틴이 그려낸 『노생거 사원』 속 복합적인 여성상과 그 이면적인 의미를 다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여성의 경제 행위에 대한

작가의 관심은 소설의 곳곳에 나타나는데, 단적으로 여성 인물들의 쇼핑행위, 소설을 소비하는 행위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지는 점, 여성을 ‘결혼 시장’에서의 상품으로 묘사한 점 등에서 드러난다. 본 논문은 경제 행위는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당대의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결혼 시장에서의 연애와 소설을 읽는 행위를 여성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 행위’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을 ‘자유 의지’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할 잠재력이 있는, 주도성(agency)을 지닌 자유로운 주체로 바라볼 때,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읽힐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노생거 사원』을 제인 오스틴의 소설들이 흔히 평가되는 것처럼 행복한 결혼으로 끝맺는 낭만적인 동화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지, 캐서린의 노생거 사원에서 결혼에 이르는 여정을 단순히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현명하고 선량한 ‘집안의 천사’로의 성장 과정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

이는 오스틴이 이 소설을 집필할 당시 여성이 처했던 두 가지 주된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크게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당대 사회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지배적인 요소라고 평가된 여성의 연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결혼 시장에서의 하나의 경제 행위로 보고 각 여성 인물의 행위를 분석할 것이다. 한편, 당대 여성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여성으로서의 지위를 표출하는 돌출구가 되었던 ‘소설 읽기’를 또 하나의 주요한 경제 행위로 보고 (Fergus, 2009), 각 여성 인물들의 독서 습관이 스스로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및 성격 형성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

지를 분석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결혼과 소설 읽기를 각각 경제 행위로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여성의 미덕을 분석하는 틀로 설정하기 위한 근거를 당대의 사회적 배경 속 여성 및 텍스트에서 먼저 찾아본 후, 이를 바탕으로 소설 속 세 여성 인물의 ‘여성상’으로서의 면모에 재접근해 볼 것이다.

2 결혼 시장 속 상품으로서의 여성

1) 경제 행위로서의 연애와 결혼

우선 오스틴 소설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결혼 플롯’을 따르는 점이다. 결혼 플롯이라는 패러다임은 부르주아 가정 이데올로기의 등가물로 오스틴의 일련의 소설에 이르러 미학적인 원숙에 이르렀다고 평가될 정도로 그녀의 소설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조선정, 2005). 『노생거 사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작품 전체의 플롯을 지배하는 큰 틀은 주인공들의 연애사와 결혼이고 개개 에피소드를 이루는 중심 소재나 각 인물들 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핵심 역시 궁극적으로는 남녀관계, 즉 결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를테면, 소설의 전반부를 통틀어 끊임없이 무도회나 옷차림에 대해 불필요하리만큼 자세한 대화가 이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결혼 플롯은 종종 ‘여주인공의 행복한 사랑의 성취’라는 결말의 틀에 갇혀 지엽적인 미시사에 집중함으로써 거대 역사 및 사회 문화적 배경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조선정, 2004). 하지만 『노생거 사원』에 나타난 일련의 남녀 간 에피소

드와 그들의 행위를 ‘미시적이고 낭만적인 연애 행위’가 아닌 ‘경제 행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아래에 인용된 부분은 당대 여성들에게 연애 혹은 결혼 상대로서 괜찮은 남성을 찾는 일이 마치 페스츄리 빵이나 모자를 사는 것과 같이 중요한 하나의 경제적인 행위로 인식되었음을 암시한다.

이 길은 정말로 불편한 성격의 거리이며, 안타깝게도 런던로, 옥스포드로와 같은 대로들, 그리고 도시의 주요 여관들과 연결된 거리라서 어느 날이든 그리고 숙녀들의 용무가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즉 페이스트리를 사려는 것이건 모자를 보려는 것이건 혹은(지금처럼) 젊은 남자들을 쫓아가는 것이건 간에, 길의 어느 쪽에서나 봄비는 마차와 수레로 지체되게 마련이다.

It is indeed a street of so impertinent a nature, so unfortunately connected with the great London and Oxford roads, and the principal inn of the city, that a day never passes in which parties of ladies, **however important their business, whether in quest of pastry, millinery, or even (as in the present case) of young men,** are not detained on one side or other by carriages, horsemen, or carts. (pp. 35-36)

이렇게 본다면 자신이 소유한 경제권의 정도에 따라 원하는 빵이나 모자를 골라 살 수 있듯이, 여성이 가진 경제적 능력에 따라 결혼 시장에서의 주도권의 정도가 달라진 당대의 사회적 상황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점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여러 번 암시되고 있다. 따라서, 관찮은 남성을 만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여성에게는 자신이 가진 경제적, 개인적인 자산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스스로를 하나의 가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관점이 성립될 수 있다 (Benedict, 2009). 이러한 경제적 관점에서 『노생거 사원』 속 주요 인물들의 행동 및 성격을 다시 분석함으로써 영국 사회라는 거시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갖는 여성으로서 미덕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자벨라(Isabella)

연애에서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이처럼 당대 영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살아남기 위한 필연적인 경제적 행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자벨라와 캐서린, 그리고 엘리너는 결혼 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정도와 이러한 인식을 성공적인 결혼으로 이끌기 위해 취하는 구체적인 행위 양상의 면에서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오스틴이 궁극적으로 의도한 결혼 시장 내에서의 바람직한 여성상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각 인물의 인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적 행위로 이어지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어느 정도로 합리적인 경제 행위로 귀결되는가의 측면이다.

먼저 이자벨라는 소설의 세 여성 주인공들 중에 당대 영국 사회에서 여성이 가지는 상품으로서의 위치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가장 높은 듯 보인다. 이 점은 다음의 구절에서 암시된다.

“나는 우리의 상황이 반대였으면 좋겠어. 내가 수백만 파운드를 가지고 있고 온 세상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내가 선택한 사람은 오로지 네 오빠였을 거야.”

“As for myself, I am sure I only wish our situations were reversed. Had I the command of millions, were I mistress of the whole world, your brother would be my only choice.” (p. 97)

이자벨라는 위의 인용구에서 표면적으로는 재산의 정도가 자신의 제임스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에서 전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반어적으로 하나의 결혼이 성사되기 위해 여성의 경제적 배경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그녀가 누구보다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이를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그로 인해 스스로가 갖게 될 결혼 시장 내에서의 우위의 정도에 대해 누구보다 뚜렷한 자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재산의 차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The difference of fortune can be nothing to signify,” p. 97)라고 말하는 캐서린의 상대적인 무지와 대비를 이루어 더욱 강조된다. 이처럼 이자벨라가 자신이 상품으로서 갖는 가치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그녀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결혼 시장 내에서의 소위 ‘자기 홍보 행위(self-marketing)’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이자벨라가 자신의 경제적 인식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 즉 자기 홍보 행위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적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녀에게 일련의 연애 행위가 철저히 목적성이 전제된 경제적 행위임은 다음의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임스와의

결혼에 대한 승낙이 떨어지자 이자벨라는 본인이 꿈꾸었던 경제적 의도를 자신도 모르게 드러낸다. 결국 이자벨라가 보이는 적극적인 사교 행위는 철저히 도구적인 의도를 전제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녀는 훌륭한 집이 곧 확보되리라고 생각했고, 그녀의 상상력은 급히 날아올라 그 집의 요모조모를 생각했다. 몇 주가 지나면 풀러턴 사람들의 시선과 경탄을 받고, ... 자기 소유의 마차를 부리고 빛나는 보석의 반지를 보여줄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보았다.

She knew enough to feel secure of an honourable and speedy establishment, and her imagination took a rapid flight over its attendant facilities. She saw herself at the end of a few weeks, the gaze and admiration of every new acquaintance at Fullerton, ... with a carriage at her command, a new name on her tickets, and a brilliant exhibition of hoop rings on her finger. (p. 99)

하지만 이자벨라가 뚜렷한 경제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의도성이 전제된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그녀가 결혼 시장에서의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여성 행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그녀가 하는 일련의 사교 행위들(flirting)은 적극성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행위들로 귀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녀의 ‘적극성’이 갖는 의미를 재해석하기 위해 이자벨라가 사교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해보았다.

먼저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이자벨라에게 큰 자산이 되는 것은 그녀 스스로를 가꾸는 일이다. 실제 그녀는 패

선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을 뿐 아니라 “그저 서로 미소를 주고받는 신사와 숙녀 사이에 불장난이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could discover a flirtation between any gentleman and lady who only smiled on each other,” p. 26)라고 묘사된 바와 같이 남녀관계에 대한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한 개인적인 자산은 그녀의 자신감을 형성하는 큰 동인이 되고 있다. 물론 외적인 치장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자신감은 소설의 초반부에 드러난 알렌부인의 집착에 가까운 패션에 대한 관심을 볼 때 당대 사회에서 이자벨라에게 한정된 것만을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자벨라의 문제는 결혼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행위자로서의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표면적인 자신감을 압도한다는 데 있다. 그녀의 열등의식은 남성들에 대한 적대적인 평가로 일관하는 ‘잘못된 도도함’으로 구현되고 있는데, 이는 텍스트의 여러 부분에서 이자벨라 자신의 입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남자들은 거리를 두고 대하지 않으면 놀랄 만큼 뻔뻔스러워질 때가 잦다니까. … 남자들은 그렇게 잘난 척한다니까. 자기들이 무척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해. … 남자의 얼굴색이 어떤 쪽이 좋아?” … “그들이 어느 쪽으로 갔니? 한 사람은 아주 잘생겼던데.”

“They are very often amazingly impertinent if you do not treat them with spirit, and make them keep their distance. … they give themselves such airs. They are the most conceited creatures in the world, and think themselves of so much importance! … Do you like them best dark or fair?” … “And which way are they gone? One was a very good-looking young man.” (pp. 34-35)

위에서 인용한 부분처럼 이자벨라는 ‘남자란 동물은 어떠한’과 같은 부정적인 판단을 자의적으로 내리고 그들 앞에서 여성은 도도해질 필요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습관적으로 한다. 이는 남녀관계에 있어 선택할 권리가 결여된 존재(“only the power of refusal,” p. 62)로서의 스스로에 대한 열등의식이 잘못된 형태로 발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열등의식을 부추긴 것은 상대적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떨어지는 이자벨라 스스로의 상품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강한 자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남녀관계에서 그녀의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 양상들로 나타난다. 우선 이자벨라는 위에서 언급된 여성으로서의 도도함을 지키려는 노력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못 남성들의 관심을 끌고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애쓰는 괴리된 양상을 보인다. 남자들 앞에서 상대적으로 초연한 캐서린과 대비를 이루어 이자벨라의 남자에 대한 과도한 의식은 오히려 그녀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과장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다음의 구절, “신경 쓰지마. 이렇게 말하면서 이자벨라는 열심히 그를 쳐다보았고”(“Never mind … Isabella earnestly fixing her eye on him as she spoke,” p. 115) 등 여러 부분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기모순성은 이자벨라로 하여금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진실된 매력을 보여줄 기회를 잃어버리고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허울뿐인 위선으로 변질되게 하였다. 여러 남성들에게 자신을 어필하고자 하는 자기 홍보에의 과한 의도가 궁극적으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 소설에서 한 가지 큰 축이 되는 이자벨라

와 틸니 대령(Mr. Tilney)의 에피소드는 이러한 이자벨라의 자기 모순성에 바탕을 둔 합리적이지 못한 자기 홍보행위의 폐해를 극단화해 보여주기 위해 오스틴이 선택한 한 가지 장치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남녀관계에서 표면적으로는 적극적인 이자벨라의 행동은 자신의 매력을 솔직하게 어필함으로써 그녀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진정한 의미의 ‘적극성’이라 평가될 수 없다. 이는 오히려 그녀로 하여금 결혼 시장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소극적인 여성으로 전락시켰다. 오스틴은 이자벨라라는 인물을 통해 당대 영국 사회 내 결혼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선택의 권리가 결여된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스스로에 대한 인식에 집착하여, 이를 벗어나고자 애쓰지만 결국은 오히려 그러한 한계에 갇혀 비합리적 행위로 귀결되는 소극적인 여성의 면을 그려내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자벨라의 문제는 당대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가지는 소극적인 위치에 대한 인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식에 갇혀 여성으로서 자신이 갖는 가치와 자질을 전달하는 ‘진실된 자기 홍보행위’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데 있었다. 외적인 것, 허울에 집착하는 여성에 대한 안타까움은 “어떤 남자도 옷 때문에 여자를 더 많이 흠모한 적이 없으며 어떤 여자도 옷 때문에 그 여자를 좋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No man will admire her the more, no woman will like her the better for it,” p. 72)라는 작가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였다(최인숙, 2011). 결론적으로 이자벨라는 스스로의 열등한 위치를 극복하고자 애쓰지만 오히려 애매모호하고 위선적인 자기 홍보행위로 귀결되는 비합리적인 행위자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3) 캐서린(Catherine)

한편, 캐서린은 결혼 시장 내에서 남성에게 의해 선택받는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여성이라는 자의식의 면에서 본 논문에서 다룬 세 여성 인물 중 가장 무지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캐서린은 “부친의 수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고”(“whose expectations had been as unfixed as her ideas of her father’s income,” p. 107)라는 구절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자신과 집안의 경제적 처지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하고 이러한 조건을 자신의 결혼문제와 연관 지어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그녀의 상대적인 ‘무지’는 실제 남녀관계에서의 ‘눈치 없음’ 혹은 ‘무감각함’으로도 구현되고 있는데 이는 작품의 여러 부분에서 꽤나 직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작품을 소위 성장 소설로 보는 흐름에서는 특히 그녀의 부족한 통찰력을 강조한다. 아래에 인용한 부분에서 캐서린은 털니 대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이자벨라가 제임스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끝까지 지켰다고 믿고 오히려 털니 대령의 잘못만을 비난하고 있다. 그녀의 순진하리만큼 부족한 통찰력에 대한 조롱은 이자벨라의 진면모를 알게 된 후 그녀가 느끼는 실망과 뼈아픈 후회 등으로 더욱 극대화되고 있다.

“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는 다른 남자와 불장난을 칠 수 없어요... 당신 형님은 무슨 의도를 갖고 계세요? 약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A woman in love with one man cannot flirt with another...**
But what can your brother mean? If he knows her engagement, what can he mean by his behaviour.” (p. 119)

하지만 캐서린은 작품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세속적이고 매사에 의도적, 계산적인 이자벨라와 대비되는 무지하고 순진하기만 한 여성이 아니다. 캐서린은 남녀관계에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자벨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결혼 시장에서의 능동적인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오스틴이 이러한 일련의 에피소드를 통해 의도한 것은 그녀의 무지함을 조롱하거나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면에 그녀가 실제 사랑을 성취해내는 과정에서 얼마나 능동적인 용의주도함을 보이느냐의 관점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인숙(2011)은 오스틴이 캐서린을 “일관성 있게 순수하고 도덕적인 여성(28쪽)”으로만 그리지는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 캐서린의 용의주도함은 그녀가 헨리를 처음 만나서 친해질 계기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러 결국 헨리와의 결혼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우선 캐서린이 이자벨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녀관계에 무지하다고 해서 그녀가 연애 자체에 완전히 무관심한 것이 아님을 다음의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트너가 없는 치욕감, 굴욕적인 심정에 즐거움이 스며들었다. 그의 갑작스런 등장에서 캐서린의 얼굴에 떠올랐던 미소와 흥조는 여주인공의 체면을 훼손하지 않고 사라질 수 있었다.

From this state of humiliation, she was aroused to a pleasant feeling, ... the smile and the blush, which his sudden reappearance raised in Catherine, **passed away without sullyng her heroic importance.**(p. 44)

위의 인용문은 캐서린이 결코 남녀관계에 초연한 여주인공이 아님을 알려줌과 동시에 이자벨라와 구분되는 그녀의 솔직한 면모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감상 소설의 여주인공이 흔히 그래야 하듯 감정을 숨기지 못한 캐서린을 조롱하는 듯하지만 이는 결국 남녀관계에서 도도한 척 위선적인 태도로 일관한 이자벨라와 달리 솔직하고 능동적인 캐서린의 긍정적인 측면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캐서린은 헨리와 결혼문제, 일기 쓰기 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나누는 대화에서 전혀 물러나지 않고 꼬박꼬박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점 역시 겉으로는 남자란 존재에 대해 도도하면서도 막상 그들 앞에서는 소극적인 여성으로 전락하는 이자벨라의 모습과 강한 대조를 이룬다. 또한 캐서린이 개진하는 의견들은 이자벨라의 알맹이 없는 언사들과도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자벨라와 캐서린은 남성을 대하는 태도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특히 소설의 결말에 이르러 두 사람의 행보에 차이가 난 것은 결국 두 사람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남녀관계에서 여성으로서의 스스로를 홍보(self-marketing)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이 작품을 캐서린의 성장 소설로 보는 많은 논의들에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생긴다. 기존의 논의들은 철저히 의도를 바탕으로 연애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어드는 세속적인 여성인 이자벨라와 대비되는 인물로서 캐서린을 도덕적이고 선량하지만 순진무구한 여성으로 그린다(김진이, 2005). 하지만 캐서린은 스스로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방법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자벨라 못지않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본 논문은 이러한 캐서린의 적극성과 용의주도함이 궁극적으로는 이자벨라보다 더 능동적인 면모를 띠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자벨라와 구분되는 캐서린의 ‘적극성’이 갖는 의미를 다음의 장면에서 분석해보겠다. 먼저 이러한 면모는 그녀가 헨리를 처음 만나 그에게 호감을 느끼고 친해질 기회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캐서린은 틸니 씨가 그 즐거운 요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알렌 부인과 쏘프 부인이 있는 곳으로 갔고….

Catherine, ever willing to give Mr. Tilney an opportunity of repeating the agreeable request, made her way to Mrs. Allen and Mrs. Thorpe as fast as she could, … (p. 48)

캐서린은 틸니 양과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선언하고는 과감하게 친구를 두고 일어섰다.

At length however, she was empowered to disengage herself from her friend, by the avowed necessity of speaking to Miss Tilney. (p. 58)

캐서린은 헨리 틸니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의 여동생 엘리너(Eleanor)와 친해질 계기를 만드는 등 용의주도한 면모(“fresh schemes,” p. 49)를 보여준다. 이러한 적극성은 그녀가 절친한 친구인 이자벨라와의 우정 앞에서도 자신의 사랑을 위해 굴하지 않는 점(“courage to command,” p. 58)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존(John)과 이자벨라 일행의 끊임없는 방해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헨리와 엘리

너 일행과의 오해를 풀고 만남에 성공하는 일련의 과정이 “공격”과 “탈출”로 묘사되고 있는 것도(p. 95) 결국은 이러한 캐서린의 굴하지 않는 용의주도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이자벨라가 털니 대령과의 관계에 대해 계속해서 위선적이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그를 거절했어. 이제 다 끝나서 다행이야!”, “I refused him as long as I possibly could. I am so glad it is over!” pp. 106-107). 이러한 용의주도함과 더불어 캐서린이 이자벨라와 차별화되는 또 한 가지 지점은 남녀관계에서 여기저기 못 남성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애쓰는 이자벨라와 달리 캐서린은 상대의 면모를 찬찬히 살피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선택한 결과대로 움직이는 비교적 신중한 행위자라는 데 있다. 이러한 면모는 존과 캐서린의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존과 캐서린의 관계는 그녀의 무감각함을 지적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단적인 예로 다음의 장면에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구애의 신호를 보내는 존을 밀쳐내는 캐서린의 태도를 들 수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장면은 온갖 방법을 사용해 구애의 메시지를 보내는 존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캐서린의 둔함을 보여주는 듯하다.

“<한 결혼식에 가면 다른 결혼식이 이어진다>라는 옛 노래를 알고 있어요?” … “그래요? 나는 노래할 줄 몰라요. 자, 좋은 여행이 되기를 빌어요.”

“Did you ever hear the old song, ‘Going to one wedding brings on another?’”… “May we? But I never sing. Well, I wish you a good journey.” (p. 100)

오빠인 제임스와 이자벨라의 연애를 눈치채지 못한 점, 털니 대령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자벨라를 의심하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과 더불어 이 장면은 캐서린이 특히 남녀관계에서 매우 무감각함을 조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전미경, 2006). 하지만 캐서린이 존 소프가 아닌 헨리 털니를 선택하고 존의 구애를 거절하기까지는 나름의 충분한 판단의 과정이 있었음이 다음의 구절에서 암시되고 있다.

캐서린은 스스로 판단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고 남자들이 어떠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도 없었지만, 그의 끝없는 자랑을 참고 들으면서 과연 그가 유쾌한 사람인지에 대한 의혹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당돌한 의혹이었다.

Little as Catherine was in the habit of judging for herself, and unfixed as were her general notions of what men ought to be, **she could not entirely repress a doubt, while she bore with the effusions of his endless conceit, of his being altogether completely agreeable. It was a bold surmise.** (pp. 54-55)

캐서린은 존 소프가 늘어 놓는 허영심 가득한 자랑에 쉽게 현혹되지 않고, 나름의 판단을 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당돌한 의혹(a bold surmise)”을 제기하고 있다. 비록 텍스트 상에는 그녀가 존의 구애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결국 캐서린은 그의 여러 면모를 고려하고 이미 이를 바탕으로 헨리 털니라는 상대에 집중하는 나름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 볼 수 있다. 헨리 털니와의 관계에서도 그녀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그를 탐색하는 과정을 거친다. 결국 캐서린은

결혼 시장 내에서 오직 거절의 권리(“woman only the power of refusal,” p. 62)만을 가지고 있는 소극적 여성으로서의 지위에 종속되지 않고 상대 남성에게 대한 나름의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목표로 삼은 대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한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인 행위로 귀결된다. 즉, 실제로 그녀가 사랑의 결실을 이루어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그녀의 ‘순진무구함’이 아닌 사회적 판단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합리적 판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치밀함과 능동성’인 것이다.

4) 엘리너(Eleanor)

엘리너는 뛰어난 외모뿐 아니라 역사,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식견이 뛰어나고 훌륭한 가정 교육을 바탕으로 예의범절과 현명함을 모두 겸비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소위 ‘집안의 천사(Angel in the house)’로서의 여성의 미덕(female virtue)을 갖춘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조선정, 2005). 오스틴이 엘리너를 묘사하는 일련의 단어들(“great civility” “a proper sense of such goodness” “real elegance,” p. 46)은 그녀가 이러한 당대 가정 이데올로기에 매우 잘 부합하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기존의 가정 이데올로기의 맥락에서 볼 때, 엘리너는 오스틴이 이상적인 여성상을 대변하기 위해 택한 인물로 보여질 수 있으나, 경제적 관점이라는 새로운 틀을 적용해보면

그녀의 여성으로서의 면모와 다른 여성 인물들과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 볼 여지가 생긴다. 먼저 결혼 시장 내에서 여성이 처한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위치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볼 때, 이자벨라와 엘리너는 서로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다. 이 점은 언뜻 공감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자벨라와 엘리너의 모습은 전자가 연애 사업에 집착하는 속물적 여성으로, 후자는 굳이 남자들의 관심을 끌려고도 하지 않는 소위 *요조숙녀*의 이미지를 갖는 여성으로 큰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엘리너 역시 남녀관계와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처한 수동적인 위치와 그로 인한 경제적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 철저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다.

틸니양도 우려와 놀라움을 드러내며 소프 양의 친척 관계와 재산에 대해 묻기 시작하였다.

Miss Tilney, having expressed also her concern and surprise, **began to inquire into Miss Thorpe's connections and fortune.** (p. 162)

이자벨라와 틸니 대령의 관계가 드러나고 자신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자 엘리너는 이자벨라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질문부터 던진다. 즉, 엘리너는 여성이 결혼 시장 내에서 스스로의 개인적인 자질보다는 경제적 처지에 의해 우선적으로 가치 매김 되는 상황에 대해 아주 잘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엘리너와 이자벨라

는 여성의 사회적 처지에 대해 뚜렷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캐서린과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두 여성 인물과 비교했을 때, 엘리너의 여성으로서의 스스로에 대한 뚜렷한 자의식은 실제 결혼 시장 내에서의 적극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매사에 사려 깊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¹⁾ 실제 남성 인물과의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초연한 태도를 유지한다. 아래에 인용된 장면에서 엘리너는 남자들을 의식하지도 않고, 굳이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저 우아함을 지키는 아름다운 인형과 같은 존재로 그려진다. 즉, 엘리너는 이자벨라와 같이 못 남성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과도한 자기홍보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캐서린처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적절히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능동성도 결여된 인물인 것이다. 이 점은 엘리너를 다른 여성 인물들과 구분 짓는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녀의 매너는 훌륭한 판단력과 훌륭한 가정교육을 드러냈다. 수줍음을 타지도 않고 짐짓 솔직한 척하지도 않았으며, 젊고 매력적이면서도 무도회에서 주위 모든 남자의 과도한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았고, 사소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황홀한 즐거움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 같은 과장된 감정을 느끼지도 않았다.

Her manners showed good sense and good breeding; they were neither shy, **nor affectedly open; and she seemed capable of**

1)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력과 사려 깊음은 이를테면, 노생거 사원에서 쫓겨난 캐서린을 도와주는 장면에서 두드러진다.

being young, attractive, and at a ball, without wanting to fix the attention of every man near her, and without exaggerated feelings of extatic delight or inconceivable vexation on every little trifling occurrence. (p. 46)

물론 엘리너가 소설의 주인공이 아니라서 그녀의 자세한 면모를 볼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녀를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급작스레 조건만 고려한 결혼에 이르는 것으로 그려낸 결말은 오스틴이 엘리너의 이러한 소극성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엘리너가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인 털니 장군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도 그녀의 매우 나약하고 수동적인 여성으로서의 면모를 유추해낼 수 있다. 따라서 엘리너는 결혼 시장에서의 스스로의 위치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인식의 틀에 갇혀 현실에 순응하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이자벨라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오스틴이 그려내는 여성의 세계에서는 주변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오스틴은 표면적으로는 이자벨라와 대비되는 엘리너를 통해 당대의 이상적인 여성상에 부합하는 여성의 아름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듯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엘리너와 캐서린의 대비를 통해 남녀 간의 결혼문제에 있어 당연히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당대 가정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의 여지가 있음을 말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3 소설의 소비자로서의 여성

1) 여성의 독서 행위

다음으로 소설의 소비자로서의 여성의 면모에 주목하였다. 『노생거 사원』에는 오스틴의 다른 어떤 소설보다 ‘책 읽는 행위’ 자체에 대한 성찰이 직접적으로 잘 나타나고, 소설 읽기에 대한 인물들 간의 일종의 ‘담론’에 주요 부분이 할애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 작품에서 주목할 부분은 소설의 소비 계층으로서의 여성 인물들의 모습이 다층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소설은 남성보다는 여성을 위한 장르라는 당대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여(Fergus, 2009) 소설 읽기를 여성 인물들 전체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듯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각 여성 인물들이 책을 소비하는 행태가 서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로 다른 소비 행태가 당대 영국 사회 내에서 그들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오스틴이 궁극적으로 의도한 여성의 미덕을 규정하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의 문제를 논의해 볼 것이다.

2) 이자벨라(Isabella)

먼저 이자벨라는 캐서린과 함께 고딕 소설의 주요 독자층으로 그려지고 있다. 소설은 그녀가 캐서린과 함께 “따뜻한 애정과 섬세하고도 독창적인 사고, 그 애정의 이성적인 면을 돋보

이게 하는 문학적 취향”(“warm attachment, and of the delicacy, discretion, originality of thought, and literary taste which marked the reasonableness of that attachment,” p. 42)을 바탕으로 우정을 나누고 교감하는 주요한 지점으로 묘사될 뿐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캐서린이 더 광범위한 고딕 소설의 취향을 기를 수 있도록 이사벨라가 그녀의 독서 행위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녀가 소설을 소비하는 행태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사벨라의 독서 행위는 캐서린이 *우돌포*에 탐닉하는 것과 같은 ‘열렬하고 진지한’ 소비 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먼저 아래에 인용한 문장에서 이사벨라는 캐서린이 *우돌포*를 끝낸 후 읽을 다른 고딕 소설을 12권이나 소개해주고 있지만 실제로 이 목록은 이사벨라 자신이 읽은 것이 아닌 앤드류 양에게서 들은 것들이다. 책 한 권을 붙잡고 끊임없이 상상하고 고민하는 캐서린과 달리 이사벨라가 제목만으로 늘어놓은 광범위한 소설의 목록은 그녀가 결혼 시장 내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취했던 위선적이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듯하다.

“*우돌포*를 다 읽고 나면 이탈리아를 함께 읽자. 널 위해서 그런 종류의 소설책 열 두어권을 뽑아서 목록을 만들어 놓았거든. ... 앤드류양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가 한 명 있는데 그녀가 그 목록에 있는 책 하나하나를 다 읽었어.”

“When you have finished *Udolpho*, we will read *The Italian* together; and I have made out a list of ten or twelve more of the same kind for you. ... a Miss Andrews, a sweet girl, one of the sweetest creatures in the world, has read every one of them.” (p. 32)

이러한 맥락에서 최인숙(2011)은 그녀의 독서 행위를 통해 ‘소비자 중심주의, 소비 지상주의(consumerism)’적인 면모를 읽을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자벨라에게 레드클리프의 고딕소설은 “캐서린과의 대화의 말미를 꺼내기 위한 수단일 따름”(24쪽)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다. 즉, 이자벨라가 소설을 읽는 것 역시 그 자체가 목적인 진실된 소비 행위라기보다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분만을 가지고 그녀의 독서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그녀가 소설 읽기에 진지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님은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도 암시되고 있다.

“우돌포와 비슷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것도 아주 재미있어.” “정말? 놀랍다. 그런데 오늘 밤에 어떤 모자를 쓸 지 결정했니? 나는 너하고 똑같이 차리기로 했어. 남자들이 그걸 때로 눈여겨보거든.”

“It is not like *Udolpho* at all; but yet it is very entertaining.”
“Do you indeed!-you surprise me. But my dearest Catherine, have you settled what to wear on your head tonight? I am determined to be dressed exactly like you. The men take notice of that sometimes you know.” (p. 34)

이자벨라는 캐서린의 소설에 대한 이야기에 반응을 하는가 싶다가 바로 남자 얘기로 화제를 넘겨버린다. 이 대목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이자벨라의 가장 중대한 관심사는 남성들과의 연애 행위에 있으며 소설 읽기는 그녀의 피상적인 관심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실제 그녀가 “로맨스 작가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

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after all that romancers may say, there is no doing without money,” p. 114) 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도 책 읽는 행위가 이자벨라의 현실적인 경제 인식이 나 사고에 아무런 실질적인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음이 암시된다. 결국 이자벨라가 소설을 소비하는 행위 역시 결혼 시장에서의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배우거나 뚜렷하게 성취하는 것이 허울뿐인 비합리적인 행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3) 캐서린(Catherine)과 엘리너(Eleanor)

한편 캐서린과 엘리너는 공통적으로 책을 열렬히 소비하는 독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구체적인 책 소비 행위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이자벨라와 캐서린의 경우에 비해 제법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책에 관해 두 사람이 일종의 담론을 나누는 다음의 장면에서 두드러진다.

“나는 역사를 좋아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의무적으로 약간 읽기는 하지만 ... 여자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정말 지루하죠. ...” “하지만 탁월한 역사가들은 자신들의 서술 방식과 문체로 가장 이성적이고 성숙한 독자들을 고문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I am fond of history.**” “I wish I were too. I read it a little as a duty, ... and hardly any women at all- it is very tiresome, ...” “but in behalf of our most distinguished historians, I must observe, they are perfectly well qualified to torment readers of the most advanced reason and mature time of life.” (pp. 88-89)

엘리너는 우돌포와 같은 고딕 소설도 읽지만 주된 관심사는 역사책에 치우쳐 있는 반면, 캐서린은 역사책을 싫어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들은 역사책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확연히 구분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단순한 독서 행위에서의 차이에서 더 나아가 이 두 인물의 전반적인 사고와 행위에까지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먼저, 상이한 독서 습관에 기인한 두 인물의 근본적인 사고의 차이는 노생거 사원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을 그린 다음의 대목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녀는 틸니 양에게 열심히 물어보았지만, 자신의 상상력이 너무나 활발했던 탓에, 답변을 듣고 나서도 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지 않았다. 그저 노생거 사원은 종교개혁 시절에 기부금을 많이 받은 수도원이었으며 ... 북쪽과 동쪽으로 치솟은 전나무 숲이 바람을 막아주는 계곡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Many were the inquiries she was eager to make of Miss Tilney; but so active were her thoughts, that when these inquiries were answered, she was hardly more assured than before, of **Northanger Abbey having been a richly-endowed convent at the time of the Reformation, ... of its standing low in a valley, sheltered from the north and east by rising woods of oak.** (p. 112)

노생거 사원에 가게 되었다는 기대에 부풀어 고딕 소설에 등장하는 신비롭고 무서운 공간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캐서린과 대조적으로 엘리너가 제공하는 노생거 사원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역사와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두 사람의 상이한 책 소비 행위와 그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그들의 행동 양상에까지 서로 다른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여성상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엘리너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소설 후반부에 걸쳐 아버지 털니 장군의 권위적인 행동에 순종적이고 나약한 모습으로 일관하는데, 이는 권위적인 역사와 사실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그녀의 책 소비 습관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녀는 실제 아버지가 캐서린을 노생거 사원에서 쫓아낸 일이 이성적으로는 부당하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엘리너의 이성적 사고와 통찰력을 길러준 것으로 생각되는 책 소비 행위가 동시에 그녀의 권위에 복종하는 소극적인 여성으로서의 면모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캐서린에게 독서 행위는 다른 차원에서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딕 소설이 캐서린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 소설을 고딕 소설의 패러디로 보는 지배적인 흐름에서 캐서린은 허무맹랑한 고딕 소설에의 잘못된 탐닉으로 인해 털니 장군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식의 해석을 내린다(Jurtikova, 2006). 하지만 엘리너와 비교해볼 때 캐서린이 노생거 사원에서 털니 장군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는 과정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끈기와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또 결론적으로 이러한 능동적인 탐구의 과정이

실제 털니 장군이 가정 내에서 가부장적 폭력에 가까운 권위를 행사하는 이면을 감지해냈다는 점에서 그녀의 행동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Robinson (2006)은 엘리너와 구분되는 캐서린의 책 소비 행위가 오히려 그녀로 하여금 역사 속에서 여성이라는 존재가 지워진 현실에 대해, 대안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능력을 길러주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결국 엘리너에게 책을 소비하는 행위가 그녀를 안전하지만 소극적인 여성상에 더욱 공고하게 갇히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캐서린의 열렬하고 진지한 책 소비 행위는 다소 비현실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녀의 현실에 대한 추진력에 동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오스틴이 지향한 여성으로서의 미덕

지금까지 『노생거 사원』을 보수적이고 진부한 여주인공의 성장 소설로 보는 흐름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해, ‘경제 행위’라는 새로운 틀로 작품 속 세 여성 인물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흐름의 기저에 깔려있는 기존 영국 사회의 가정 이데올로기를 반성적으로 성찰해보고자 하였다. 인물 각각의 결혼 시장에서의 인식과 행동, 그리고 책 소비 행위를 경제 행위의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텍스트의 이면에 있는 의미를 분석해보았다. 먼저 이자벨라는 결혼 시장에서 스스로가 갖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매우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현실적 굴레에 갇혀 겉치레와 위선이라는 잘못된 자기

홍보행위로 일관함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결국 결혼 시장의 주변부에 소극적인 행위자로 남았다. 그녀가 책을 소비하는 행위 역시 스스로를 고양시키기 보다는 걸치레로 ‘그저 소비하기만 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표면적으로는 당대 가정 이데올로기의 표본으로 그려진 엘리너 역시 결혼 시장 내에서 스스로가 갖는 위치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러한 인식에 갇혀 능동적이고 솔직한 자기표현의 행위 없이 그저 소극적인 여성에 머물렀고, 그녀의 책 소비 행위 역시 이러한 소극적 태도와 현실 순응의 동인이 되었다. 반면 캐서린은 현실적인 조건에 대해 다소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는 행위자로서 끊임없는 나름의 판단과 사고를 바탕으로 선택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용의주도함과 끈기를 보였다. 그녀의 비현실적이고 허무맹랑한 고딕 소설에 대한 탐닉 역시 다른 두 인물이 갖지 못한 끈기 있는 추진력의 형태로 구현되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헨리가 캐서린에게 반해서 그녀에게 구애하고 결혼하게 되는 결말은 이 소설을 성장 소설의 맥락에서 평가하는 기존의 흐름들과는 다른 맥락에서 오스틴이 기대한 여성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인용문에서처럼 캐서린이 먼저 자신의 애정을 보임으로써 헨리의 사랑을 얻게 된 과정은 흔한 로맨스의 여주인공의 품위를 매우 떨어뜨리는 상황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캐서린은 아름답고 무지하기만 한 여성이 아닌 무지하지만 솔직함과 소신, 용의주도함을 갖춘 능동적인 여성으로서 스스로 성공적인 결혼에 이르게 된 것이다.

원래 그의 애정은 고마움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해야겠다. 그녀가 자신에게 애정을 느끼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로맨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상황이고 여주인공의 품위를 몹시 떨어뜨리는 상황이란 점을 나는 인정한다.

I must confess that his affection originated in nothing better than gratitude, that a persuasion of **her partiality for him had been the only cause of giving her a serious thought**. It is a new circumstance in romance, I acknowledge, and dreadfully derogatory of an heroine's dignity. (p. 192)

물론 캐서린은 당대 사회에서 ‘상품’으로서의 여성의 위치를 전복하지는 못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도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여전히 헨리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현실적 조건 내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이행한 캐서린의 당돌한 면모인 것이다. 단적으로 소설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헨리와 캐서린의 끊임없는 대화 역시 직접적으로 남성을 교육하고 가르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담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소신 있는 여성상을 염원한 오스틴의 여성 작가로서의 면모가 드러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오스틴은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선택의 이점”(“advantage of choice,” p. 62)이 허락되지 않는 냉혹한 당대 시장의 맥락에서 남성과 대등한 정도의 주도적인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거절의 권리”(“only the power of refusal”)에 종속되지 않는 나름의 소신과 판단력을 갖춘 능동적인 행위자로서의 여성상을 캐서린에 투영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Sarah Emsley (2005)는 제인 오스틴의 미학의 철학에 대한 연구에서 그녀가 그려낸 이상적인 여성상을 “보수적이지만 유연하다”(“conservative, yet flexible,” p. 2)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는 오스틴이 지향한 여성의 미덕에 대한 철학을 권위에 대한 수용과 거부 사이에서 끊임없는 사고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즉, 여성에게 기대되는 전통적인 행위 양식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미덕이 아예 제거된 허무맹랑한 세계를 지향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배우고 연습해서 발현시킬 수 있는 미덕을 고민하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노생거 사원』은 작가의 동시대 작품 중에서도 특히, 세 여성 인물의 대조적인 면모를 통해 당대 사회의 맥락에서 작가가 추구한 여성상을 캐서린에 잘 녹여낸 작품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오스틴 소설 전반에 대한 평가를 본 작품에 적용해 볼 때, 오스틴이 캐서린과 같이 무지하고 평범한 여주인공과 이자벨라, 엘리너의 대비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여성상은 그 양 극단의 어느 지점에서 소신 있는 자기 판단과 선택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통해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고양 시킬 줄 아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남성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능동적인 여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논문 투고 일: 2024.01.05.
- 심사 완료 일: 2024.01.30.
- 게재 확정 일: 2024.02.20.

참고문헌

- 김진이 (2005). “『노생거 사원』의 캐더린 몰랜드에 대한 성격 분석.” 『인문과학연구』, 5권, 1~22.
- 전미경 (2006). “노생거 사원에 나타난 이중적 서술과 여주 인공의 성장.” 『근대영미소설』, 13권 1호, 219~237.
- 조선정 (2004). “결혼 플롯과 그 불만: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에 나타난 여성 주체의 욕망을 중심으로.” 『영미문학연구』, 6권, 113~137.
- 조선정 (2005). “영미소설에 그려진 결혼과 가정; 『노생거 사원』에 나타난 결혼과 가정 이데올로기.” 『안과 밖』, 18권, 8~33.
- 최인숙 (2011). 『노생거 수도원: 공간 이동에 따른 여주인공의 성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usten, J. (2005). *Northanger Abbey*, New York: Longman.
- Benedict, M. B. (2009). *The trouble with things: Objects and the commodification of sociability*. In J. Claudia & T. Clara. (Eds.,) *A companion to Jane Austen* (pp. 343~354). Malden: Wiley-Blackwell.
- Emsley, S. (2005). *Jane Austen's philosophy of the virtu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Fergus, J. (2009). *The literary marketplace*. In J. Claudia & T. Clara. (Eds.,) *A companion to Jane Austen* (pp. 41~50). Malden: Wiley-Blackwell.

Jurtikova, M. (2006). *Northanger Abbey as a parody of the Gothic novel*. Masaryk University.

Robinson, T. (2006). A mere skeleton of history: Reading relics in Jane Austen's *Northanger Abbey*. *European Romantic Review*, 17(2), 215~227.



Abstract

The female virtue in 『Northanger Abbey』 through the economic framework: Isabella, Catherine and Eleanor within the marriage and literary market

Haeyun Jin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question the prevailing trend of viewing "Northanger Abbey" as a conservative and stereotypical growth novel centered around the main female character. In an effort to critically reflect upon the underlying ideologies of traditional British society, a new perspective of 'economic actions' is introduced and applied to analyze the three female characters (Isabella, Catherine, and Eleanor) in the novel. In particular, the paper delves into the characters' perceptions and choices in the marriage market, as well as the trends in their book consumption behaviors, interpreting the profound meanings embedded in the text. Isabella, despite accurately recognizing her economic value in the marriage market, remains trapped in

societal constraints, presenting herself passively through superficial self-promotion and ultimately occupying a peripheral role in the marriage market. Her approach to reading books reflects a mere surface-level consumption. Eleanor, ostensibly depicted as a prototype of domestic ideology of the time, similarly remains passive within the marriage market, constrained by her perception of societal expectations and lacking active self-expression. On the contrary, Catherine exhibits assertiveness as an active agent, consistently applying her judgment and reasoning to translate her choices into actions, demonstrating resilience and determinatio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three characters, the paper sought to explore the female virtues as envisioned by the author within the context of the traditional British society.

| **Key Words** | Jane Austen, Northanger Abbey, female virtues, femininity, economic actions